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탄력 붙었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고, 2만여명의 시민들이 서명 작업에 나서는 등 관련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해져 박람회장을 활용해 순천만 일대를 국내 정원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후활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촬영한 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운영비 등을 부담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정원을 말한다. 그동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에는 정원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이 힘들었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순천만정원을 첫 번째 국가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추진 일정

- 2013년 12월 23일 수목원법 개정을 위한 용역완료(산림청)
- 2014년 3월 법 개정안 국회 제출(산림청장, 농림부)
- 2014년 6월 국회 의결 예정
- 2014년 하반기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목표

법을 개정할 주요 내용

- 1 산림청장은 정원의 육성 및 확충 등을 위한 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2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 3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명칭, 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4 식물의 증식방법 개발, 모델정원 조성 등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비 지원

◇국가정원 시민의 힘으로=순천 시민들이 '순천만 정원'을 국내 '제1호 국가정원' 지정받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이·통장협의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 등을 알리기 위한 건의문과 28만 순천시민의 의지를 나타내는 1만80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주민 대표들은 지난 3월부터 순천 시민과 순천만 정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왔다.

이 건의문에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정원 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정원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원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나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법 개정 사실상 마무리 단계=순천만

5월 연휴에만 28만명 찾은 대한민국 대표정원 하반기 지정 목표 관련법 개정·서명 운동 활발

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산림청)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원산업 기본법' 제정 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원 산업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순천만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이 법률에는 국립 수목원, 공립 수목원, 학교 수목원만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고, 정원에 대한 법률은 없는 상태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산림청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단체 등과 세부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법 개정 전에 기업과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박람회장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 조항도 담기게 된다.

또 순천시도 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 후 세계 유명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2년에 한 번 정원박람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람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국내 작가들의 정원을 선보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관광 명소로 가꿀 수 있다"면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용역에 따르면 박람회장 재개장을 통한 입장료, 임대사업 등의 수익은 113억원에 달해 후자 사후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박람회의 감동 지속=어린이날

인 5일에만 10만3000명이 방문해 개장 이후 일일 최고 관람객 수를 경신하는 등 지난 3~6일 황금연휴 기간에 순천만정원 박람회장을 다녀간 사람은 28만명에 달했다.

이처럼 하루 2만2000여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개장 22일째를 맞은 지난 11일에 순천만 정원 관람객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순천시는 개장에 맞춰 스카이 큐브와 꽃마차, 이색 자전거를 운영하고 3만 5000㎡의 유채꽃 단지도 조성했다. 또 포토 존 설치 등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지난 해보다 5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었다.

순천시는 또 순천만 정원만의 특색을 갖고 봄이면 꽃, 여름이면 물, 가을이면 익어, 겨울이면 눈과 얼음으로 테마를 바꿀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순천!'이란 슬로건에 맞춰 도시 전체를 정원화해 체류형 관광의 신상품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순천=예정열·김은종 기자 yjy@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들

1조4000억원

순천만정원 생산유발효과

순천만 정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1조 4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순천시는 13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전남대 이정록 교수)이 수행한 '2013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도시 마케팅 성과 도시발전계획'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1조38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997억의 소득유발효과 ▲5270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1만305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9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추정했던 생산유발효과(564억원), 소득유발효과(953억), 고용효과(2261명) 보다 높은 수치다.

또 정원박람회 개최로 순천시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박람회 개최로 순천시 브랜드 가치가 약 1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예정열기자 yjy@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

다양한 시책 본격 추진

순천시는 오는 2020년까지 낙안읍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13일 순천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 연초 안동 하회,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 벤치마킹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낙안읍성 활성화 및 상생발전 컨설팅"을 통해 주민 갈등 해소 및 상생발전을 위한 소득 창출 방안도 찾고 있다.

낙안읍성 외곽을 따라 낙안팔경과 전원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아트바이크(예술자전거) 운영을 위해 관람로 정비설계를 완료한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낙안읍성 '초가우체통'은 이날에만 8000여장의 엽서가 회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 5월말엔 낙안읍성을 배경으로 한 엽서 제작이 완료돼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도 늘고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 등 각종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이테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테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